

## 사무엘상 9.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삼상 8장 1-22 절)

### 들어가기

사무엘상 8 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주변국가들과 달리 왕이 없는 신정국가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로 일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달리 여러 가지 불의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를 계기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생기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 1. 사무엘의 두 아들 (1-3 절)

- 사무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 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아’ 였습니다.
- 이들은 사무엘의 뒤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참고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 아마 저들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역하였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 ➤ 주목 1. 3 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한 3 가지 잘못

- ① 아버지의 경건한 삶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
- ②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 뇌물을 취하였다는 것
- ③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것

참고로 사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당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른 바른 판단을 내려 줌으로써 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더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의 책무를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생각하기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2.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4-6 절)

➤ 주목 2. 장로들이 말하는 왕이 필요한 3 가지 이유

- ①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기 때문
- ②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좀더 구체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 ③ 주변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 뚜렷한 지휘 체계와 함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20 절)

✚ **생각하기 2** 이런 장로들의 요구가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무엇일까?

3.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9 절)

➤ **주목 3.**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셨다는 사실!

8 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저들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사실을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혹은 더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어떤 신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주의를 버리고 왕정주의를 택한 것은 그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한 것과 같다!’

3.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세우면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10-18 절)

1) 그럼, 저들이 왕을 세워 발생하게 될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 첫째, 사회적인 문제들?

- 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왕의 필요에 따라 징집하게 될 것 (11-13 절)
- ② 곡물과 가축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게 될 것 (14, 15, 17 절)
- ③ 백성들의 종과 나귀를 필요에 따라 각출하게 될 것 (16 절)
- ④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 (17 절)

참고로 우리가 10-18 절까지 읽으면서 주목할 단어는 ‘취해’라는 단어인데, 총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

곧 사무엘은 결국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깨닫게 하였다는 사실!

참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요 국가를 강조!

그러나 우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왕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백성들을 압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는 것..

■ 둘째, 영적인 문제? -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더 심각한 문제!)

➔ 그렇게 세운 왕의 악정으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

18 절,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 **생각하기 3.** 그럼 왜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에 앞으로 응답하지 않겠다고 경고 하셨을까?

4.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19-20 절)

➤ 주목 4. 20 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왕의 형태

- ① 다른 나라와 같은 형태의 왕 -> 권력형 왕 -> 자신들 앞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싸울 것
- ② 자신들은 스스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심

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1-22 절)

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워 주시기 위해 미리 그 법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신명기 17 장 14-20 절 찾아서 읽어 보자~

곧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때를 대비하여 왕과 관련된 율법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서 먼저 왕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에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생각하기 4.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